

[에버렛 스완슨이 기도 동역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1955-05-19

한국의 38 선 북편

사랑하는 기도 친구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¹푹찹힐(Pork Chop Hill)", "²단장의 능선(Heart Break Ridge)", "³백마고지(White Horse Mountain)" 일대에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의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과 나눈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국의 중부에 위치한 안동과 서남해안 여수에서 진행된 전도 활동은 범상치 않은 방법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큰 천막은 언제나 비좁았고, 심지어 오전 10 시 30 분과 오후 2 시 30 분 예배조차도 사람들이 천막 주변 넓은 공간까지 넘쳐났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 5 시 30 분 기도회에서 사람들은 천막 밖 먼 곳까지 밀려나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려는 수많은 인파가 천막으로 밀려들어 사람들의 안전이 매우 염려될 때도 있었습니다. 천막은 튼튼한 기둥으로 세워졌지만, 천막을 친 데크 주변과 그 위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 혹시 무너지지는 않을까 두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작은 산에 있는 옛 일본 신사 지역인 안동에서 부활절 해맞이 예배를 기념하여 대규모 군중에게 설교하는 것은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아주 많은 남녀 노인들이 153 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새벽 4 시 30 분, 수많은 기독교 청년이 촛불을 들고 행진하며

¹푹찹힐(Pork Chop Hill): 1953년 3월 23일~7월 11일까지 미군 7사단과 중공 67사단이 경기도 연천군 천덕산 주변의 255m, 300m 고지군을 두고 벌인 고지전

(<https://namu.wiki/w/%ED%8F%AD%EC%B0%B9%ED%9E%90%20%EC%A0%84%ED%88%AC>)을 이리며, 미국에서 같은 이름으로 영화가 제작된 바 있음.

²단장의 능선(Heart Break Ridge): 1951년 9월 13일~10월 13일까지 미국 2보병 사단과 프랑스 대대 및 네덜란드 판 회츠 연대가 중동부 전선의 주저항선을 강화할 목적으로 894고지, 931고지, 851 고지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제6, 12사단을 공격하여 점령한 공격 전투다. 전투가 끝난 후 "단장의 능선"이란 이름이 붙여졌으며, 강원도 양구군 일대를 이룸 (https://ko.wikipedia.org/wiki/%EB%8B%A8%EC%9E%A5%EC%9D%98_%EB%8A%A5%EC%84%A0_%EC%A0%84%ED%88%AC).

³백마고지(White Horse Mountain): 1952년 10월 6일~10월 15일까지 한국군과 미군이 중공군과 싸워 승리한 전투로 백마고지 전투라고 불림. 강원도 철원군 일대를 이룸 (https://ko.wikipedia.org/wiki/%EB%B0%B1%EB%A7%88%EA%B3%A0%EC%A7%80_%EC%A0%84%ED%88%AC).

“예수 부활했으니(Christ the Lord is risen today)”를 부르는 것을 보는 것은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전에 이미 2 시간 동안 도시 곳곳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 통역사는 식중독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의 생명이 거의 절망적인 상태까지 이르렀었지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여수 지역의 집회 감독자는 5 일간의 집회 동안 총 544 건의 개종 결단서를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영혼 구원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불신자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폐회 찬송을 부르고 있는 동안 집사님들과 여집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예배당 뒤에서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집회가 끝날 무렵, 42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고백하고, 찬송을 부르며 개종 결단서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 일부는 왜 예배 시간이 더 길지 않은지 궁금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네 번씩 드러지는 집회는 고국에서의 한 달과 거의 같습니다. 장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재정적 이유와 고국에서의 업무 때문에 더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긴 집회 기간은 10 일이었습니다.

여수에 있는 동안 큰 한센병 정착촌을 방문하는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500~600명의 한센병 환자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감동이었습니다. 일그러진 얼굴의 한 장로가 감동적인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이 교회에 700명이 넘는 교인이 있는데 모두 한센병 환자입니다. 가까운 섬에 4,200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모두 한센병 환자입니다! 이 4최초의 한센병 환자 교회의 목사에게는 장성한 아들이 두 명 있었는데, 1948년 공산주의자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자기 아들로 입양하여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그는 성경연구소에 다녔습니다. 1950년, 다른 공산주의자들이 이 목사를 데려가 총살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그의 사별한 아내를 위해 좋은 집을 지어 주었지만, 그녀는 그곳에 살기를 겸손히 거절했습니다. 그 집에서 살 자격이 없다니요! 그리스도의 용서, 사랑, 순교, 겸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제 사역의 또 다른 대상은 학생들입니다. 이 기간에 저는 약 10,000명의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백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지난 3 주 동안 저는 한국 군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가장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거듭 감탄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기금을 보냈던 포드 및

⁴역주) 최초의 한센병 환자 교회의 목사(손양원 목사 1902~1950):

<https://namu.wiki/w/%EC%86%90%EC%96%91%EC%9B%90>

⁵오스틴(Austin) 트럭을 타고 수백 마일을 여행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산, 산, 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산입니다! 꼬불꼬불 구부러지고, 좁고, 높고, 위험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불어난 강물 속에서 트럭이 강바닥 깊이 가라앉아 꼼짝없이 갇혀 있는 상황이 얼마나 무력하게 느껴지는지 아시나요? 또는 주유소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는 산 중턱에서 타이어가 핑크난 상황은 어떻고요? (저는 이번 여행에서 3 번이나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느 마을에서든 예측할 수 없이 떼로 몰려드는 어린이들을 볼 때면, 혹시라도 어린이들이 다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군용 지프, 비행기 및 헬리콥터를 타고 수백 마일을 여행했습니다.

군대에서의 예배는 가능한 한 많은 예배가 매일 준비되었습니다. 어제 최전방에서 7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저녁 9시에 일곱 번째 예배를 인도하라고 요청했지만, 오늘 제 힘이 감당할 수 있는 건 여섯 번이었습니다.

참석 인원은 약 30 명에서 2,000 명 이상까지 다양했으며, 평균 1,000 명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약 5~10%는 기독교인이고, 2% 정도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4 번째로 큰 이 군대의 최전방 사단에서 보이는 반응은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몇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지는 오직 영원의 시간만이 밝힐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많은 장군들과 다른 고위 장교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늘 저는 2 성 장군에게 그가 기독교인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집사이며,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한 기독교인 장군과 저는 예배 시작 전 예배당 밖에 앉아 주님과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미국 장교들은 이곳에 와서 일부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욕하고 간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이라고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 미국을 도우소서!

이 험준한 산의 최전선에서 군대 교회 위로 솟은 종탑과 십자가가 어우러진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제가 이를 전에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한 후, 지휘관(대령)은 하나님과 그의 부하들 앞에, 부하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짓지 않은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곧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한 대령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오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⁵오스틴(Austin) 트럭: 영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오스틴(Austin)에서 제작한 영국의 경트럭

오, 친구들이여, 매일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에 대해 찬양합니다.

이곳 최전방에서 저는 곧장 D.M.Z(비무장지대)로 가서 휴전선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가장 높은 감시초소에서 지뢰밭과 참호, 벙커 등을 지나 각자의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병사들에게 기독교 소책자와 전단지들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책자를 만들어 주신 분들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자 없이는 제 사역이 절반의 효과밖에는 거두지 못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애틀의 ⁶<라이프 메신저스(Life Messengers)>는 저에게 ⁷<히어즈 하우(Here's How)>를 백만 부 제공할 예정이며, 저는 다른 책자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돌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신 보육원 3 곳과 188 명의 어린이를 방문하게 되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미흡합니다. 공간이 얼마나 붐비는지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여수에서는 17 명의 어린이가 8.5x8.5 피트(2.6x2.6 미터)의 방에서 잠을 잡니다! 삼척에서는 40 명의 소년이 18x15 피트(5.5x4.6 미터)의 방에서 잡니다! 21 명의 소녀가 12x12 피트(3.6x3.6 미터)의 방에서 잡니다! 이 방들은 거실, 식당, 교실의 역할도 동시에 합니다!!

또한 좋은 음식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복은 비참할 정도로 초라하고 그나마도 몇 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거리에서 죽거나 시궁창에서 발길질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성경구절을 인용하며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의 도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것이 필요할까요? 또한 단 한 명의 직원도 자신의 일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제공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 몇 분이 후원해 주신 24 명의 전도사 중 여러 명을 만나 보았습니다. 이들은 1 년도 채 되지 않아 약 17 개의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⁶<라이프 메신저스(Life Messengers)>: 레이 존슨(Ray W. Johnson, 1912~2010) 목사가 1944 년 설립한 미국의 기독교 출판사이며, 레이 존슨 목사가 쓴 <히어즈 하우(Here's How)>는 여러 언어로 6,500 만 부 이상 인쇄되었다. 그 외 많은 기독교 소책자 및 전도지를 출판하였다(<https://www.legacy.com/us/obituaries/seattletimes/name/raymond-johnson-obituary?id=17161595>).

⁷<히어즈 하우(Here's How)>: 레이 존슨(Ray W. Johnson, 1912~2010) 목사가 저술한 기독교 소책자로서 세계 여러 언어로 6,500 만 부 이상 인쇄되었다(<https://www.legacy.com/us/obituaries/seattletimes/name/raymond-johnson-obituary?id=17161595>).

일부는 이미 자체적으로 교회 건물을 지어서 자립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우리가 구입한 군용 텐트나 집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생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제 손을 꼭 잡고 저와 여러분의 지원에 대해 거듭 감사하며, 헤어질 때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북한에 아내와 자녀를 두고 있고(그곳에서 그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가족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제가 맡은 일 중 가장 힘든 일이었지만, 처음 왔을 때 감기에 걸린 것 외에는 감사하게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군용기가 제주도의 거친 들판에 착륙하여 30 피트(약 9 미터) 높이로 튕겼을 때였고, 또 한 번은 저의 한국인 운전사가 난간이나 보호 장치가 없는 위험한 도로에서 산을 오르다가 깜빡 졸았을 때였습니다. 만약 제가 바로 운전대를 잡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편지는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근에 또 한 번은, 자동차 조종 장치가 느슨해져서 곧 떨어질 염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주님께서 직접 도와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제 사역은 한 달 안에 끝날 것이고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카고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곳은 벌써 여행과 야외 모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마가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의 고국에서의 전도사역과 이곳의 고아들, 전도사들, 문서사역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한국에서의 이 사역을 도와주십시오. 선교헌금이 이보다 더 멀리 나아가 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기쁨도 한국에서 수천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에버렛 스완슨 올림